



## 개교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의 사회불안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

권정현<sup>1</sup>

---

### ◀< 요약 >▶

---

본 연구는 개교 초등학교 4~6학년 전학생의 사회불안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로, 전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변인 간 관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5년에 청주시에 개교한 초등학교로 전학 온 초등학생 중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된 자료 중 283명의 데이터를 SPSS 및 AMO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초등학교 전학생의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 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변인을 제외한 하위 변인 간에도 상관이 존재하였다. 둘째, 사회불안이 사회정서역량에 이르는 경로와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하고, 사회불안에서 학교적응 간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아, 사회불안이 사회정서역량을 통해 학교적응에 완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들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초등학교 전학생, 사회불안, 학교적응, 사회정서역량, 매개효과

---

---

1. 국립군산대학교 조교수, [kwoonga@kunsan.ac.kr](mailto:kwoonga@kunsan.ac.kr) (주저자)

## I. 서론

학교는 지식을 학습하는 공간이면서 타인과 관계하면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와의 관계,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며, 학생들은 학교의 다양한 규칙과 질서를 익히는 과정은 해당 문화를 습득하고, 사회가 지닌 가치를 학습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Cheng & Chan, 2003). 특히, 초등학교는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발달시키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로 인간의 발달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발달민감기에 속한다. 이 시기 초등학교 학생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로 관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회성을 형성하게 된다(구해인, 2017). 학교 생활과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발달을 수행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면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동시에 적절한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이뤄나간다(정수현, 김유미, 2023).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전학을 통한 급격한 환경 변화는 적응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학은 초등학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벗어나 급격하게 변화한 환경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요구한다. 학교적응이란 학교 환경에서 사회생활 규칙을 학습하고, 또래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생활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한솔, 김규찬, 2023; 이정운, 이경아, 2004). 초등학교 학생들은 신체적 발달과 함께 심리·정서 및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단계로 급격한 환경 변화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김사다 외, 2017; 김성식 외, 2024).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학은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한다(방승일, 2009). 기존 연구들은 전학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 소속감 결여,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유발하며, 이는 우울과 불안, 학업 저하 등 다양한 부적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차원희, 2000; 이웅택 외, 2014; 조영민, 김석주, 2019). 본 연구의 대상인 개교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집단으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동시에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관계 형성의 경쟁 구조, 또래 집단 재편성, 초기 집단 규범 형성 과정 등에서 상이한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김사다 외, 2017; 허가람, 박영림, 2023).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연구는 국내 3편(김사다 외, 2017; 신혜림, 권정현, 2025; 허가람, 박영림, 2023)이 발견되어 제한적이며, 선행 연구들은 전학생의 적응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전학생 중에서도 고학년(4~6학년)은 인지적·정서적 발달이 심화되면서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서보나, 김유미, 2023).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아개념이 보다 안정화되는 동시에 사회적 비교와 평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관계 변화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저학년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초등 고학년은 또래 수용, 사회적 지위, 관계 갈등 등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보고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학업 및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시기이다(김수정 외, 2018). 이러한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초등 고학년 학생들은 개교 학교로 전학하면서 학교 적응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학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핵심 심리 요인으로 사회불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시각과 평가에 민감하게 예민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이다(Schlenker & Leary, 1982). 특히, 사회불안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 행동을 포함하는 정서적 특성으로, 또래관계 형성과 학교생활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연수, 김수정, 2020). 전학생은 새로운 또래 집단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선행 연구에서도 사회불안은 학교적응과 부적 관계를 가지며, 또래관계 형성과 학업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Degnan & Fox, 2007; 김수정 외, 2018).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단순히 위험요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넘어, 적응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변인이 사회정서역량이다. 우연경과 이인테(2024)는 CASEL의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개념과 사회정서학습을 통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Core competence를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개인의 성장과 발달, 적절한 관계 형성, 공동체에 기여, 책임감 있는 판단과 결정, 행동 실천을 위한 지식·기술·태도의 전체적 특성으로서의 사회적·정서적 측면의 유능성’이라고 하였다. 개인 내적상태는 물론 사회적 삶과 연계되어 자신의 사회적 활동과 정서적 특성에 대한 역량을 의미하는 사회정서역량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외의 선행 연구물들(Taylor, Oberle, Durlak, & Weissberg, 2017; Zins, & Elias, 2006)은 물론 국내의 선행 연구물(김은정 외, 2015; 김현진 외, 2020)에서도 사회정서역량이 낮은 학생들이 학업문제, 학습된 무기력,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정신건강문제 호소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이 학교 교육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신현숙, 201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새로운 학교로 전학 온 초등 고학년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심리정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학생의 사회 정서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앞서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회불안 요인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전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전학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교에 적응이라는 과제를 안겨주며,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금화, 2005; 차원희, 2000; 이응택 외, 2014). 급격한 심리·정서 및 사회적 발달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학 관련 선행 연구물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이후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학술지 논문으로는 총 7편의 연구물이 존재하며, 학위논문을 포함할 경우 총 16편의 선행 연구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전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물(김사다 외, 2017; 김주희, 2015; 백경숙, 2003; 이가연, 2010; 안상현, 2016; 차원희, 2000; 최정운, 2016)들이 많았으며, 초등학교 전학생의 심리정서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김보미, 2019; 김사다 외, 2017; 나재은, 2015; 문지혜, 2020; 조영민, 김석주, 2019)도 존재하였다. 전학과 관련하여 전학 선호도, 교사 선호도,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연구물(김성식 외, 2024)과 미국 초등학교 전학생의 눈에 비친 잠재적 교육과정 에 대한 연구(송애리, 2019)는 전학과 관련하여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전학 경험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연구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학 경험의 의미와 적응 과정을 탐색하는 질적·탐색적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차원희(2000)는 체험분석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의 전학 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백경숙(2003)은 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 스트레스와 대처 과정을 분석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 및 상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상현(2016)은 심층면담을 통해 전학생의 학급생활 적응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사의 학급 운영 및 생활지도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학 경험의 심층적 이해에 기여하였으나, 주로 사례 중심의 분석에 머물러 변인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전학 경험이 학교적응 및 관련 결과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가연(2010)은 학교상담활동이 전학생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고, 김주희(2015)는 전학횟수, 전학시기, 성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학생의 전반적인 적응 수준을 파악하였다. 최정운(2016)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전학경험에 따른 정서문제와 학교적응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일부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한편, 문지혜(2020)는 초등학교 시

기의 전학 경험이 이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학 경험과 적응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특정 변인 간 단편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심리·정서적 요인을 포함한 통합적 설명에는 제한이 있다. 셋째, 전학 경험과 심리정서적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 조영민과 김석주(2019)는 전학 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나재은과 김지현(2016)은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전학 경험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김보미(2019)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전학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학 경험과 심리·정서적 요인 간의 관계를 확장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초등학교 전학생 집단으로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전학 경험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질적 연구 중심의 탐색적 접근이 많아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며, 양적 연구 역시 개별 변인 간 단편적 관계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심리정서적 변인을 포함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나, 다양한 변인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학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심리·정서적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연구 방법론적으로 가장 유사한 연구는 김사다 외(2017)의 연구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전학 초등학교생 380명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학생의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회정서역량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불안이 학교적응과 부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김연수, 김수정, 2020; 김수정 외, 2018)와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 간에 정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김소영 외, 2018; 김지연, 신태섭, 2023)를 통해 그 관계를 설정하였다. 사회불안과 사회정서역량의 개념적 관련성을 고려하고, 두 변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사회불안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개교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들의 사회불안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개교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개교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들의 사회불안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청주시에 개교한 A초등학교에 전학을 온 4~6학년 14개 학급 총 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283명의 데이터를 확인 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개교한 A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는 동시에, 4~6학년 학생들 전체에 대한 균집표집을 시행하였다. 전문가 16인(교수 2명, 초등교사 14명)이 언어적 이해를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이 적합한 초등 4학년부터 6학년의 학생이라는 의견에 따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전문가 16인의 자문은 연구 계획 단계에서 대면 자문(교수 2명)과 설문과정에서 담임교사 연구 설명 및 협조 시 대면 자문(초등교사 14명)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해당 전문가들은 모두 초등교사 근무경력이 있으며, 초등교육 관련 전공자로 자문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5년 3월에 개교한 A초등학교에 3월 중 전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들의 협력하에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 중 참여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1~2주 2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2025년 사회불안과 사회정서역량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신혜림, 권정현, 2025). 연구 대상자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기본정보

구분		N(명)	비중(%)
성별	남	127	44.9
	여	156	55.1
학년별	4학년	102	36.0
	5학년	94	33.2
	6학년	87	30.8
총인원		283	100%

## 2. 측정 도구

### 가. 사회불안 척도

본 연구에 활용된 사회불안 척도는 전학을 경험한 초등학생이 학교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La Greca(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를 양재원 외(2008)가 연령층을 고려하여 아동용으로 타당화를 거친 척도를 배민영(2014)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수는 18문항이다. 하위요인은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5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5문항,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배민영(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내적일관성은 .940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일관성은 .925로 산출되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가 학교적응 척도를 제작한 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 및 보완한 것(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을 최정운(2016)이 초등학생 학교 전학 경험 관련 연구에 사용한 척도를 적용하여, 전학과 관련한 연구 주제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하위요인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인 이 척도를 통해 도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최정운(2016)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내적일관성은 .8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내적일관성이 .822로 산출되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사회정서역량 척도

본 연구에 활용된 사회정서역량 척도는 우연경과 이인태(2024)가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초등학생용 척도로, 본 연구가 4~6학년 대상이기에 연구 대상의 사회정서역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총 21문항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은 공감하

기 4문항, 자기 관리하기 4문항, 정서인식 및 조절하기 5문항, 긍정적인 관계 맺기 4문항, 책임있는 행동하기 4문항으로 되어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우연경과 이인태(2024)의 연구에서의 문항내적일관성은 .91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일관성은 .874로 산출되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척도별 예시문항

척도		예시 문항
사회불안 척도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2.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긴장한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13.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긴장한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
학교적응 척도	학습활동	3.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학교규칙	7.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교우관계	13.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교사관계	18.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사회정서역량 척도	공감하기	10. 나는 평소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자기관리하기	6. 나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정서인식 및 조절하기	1.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불편하고 나쁘지 알고 있다.
	긍정적 관계맺기	14. 나는 우리 반 친구들과 두루 친하게 지낸다.
	책임있는 행동하기	18. 나는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고 있다.

### 3. 자료 처리와 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 29.0과 AMOS 29.0을 자료 처리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측정 도구들의 문항내적일관성을 검토하여 모든 측정 도구들이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척도, 왜도 산출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수의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 상관을 확인한 후, 설정한 연구 모형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적 관계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을 관측변수로 간주하고, 측정 도구의 변인을 잠재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모형적합도(CFI, IFI, TLI, RMSEA, PNFI, PCFI)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 5,000회를 리샘플링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초등학교 4~6학년 고학년 전학생들의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변수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변수의 기본적인 기술통계 실시 결과는 <표 3>와 같이 제시하였다. 변수들의 최소값은 1.00~2.24로 나타났고, 최댓값은 4.00~5.00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1.845~4.215, 표준편차는 0.033~1.022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분석 결과값에서 왜도는 -0.985~1.258로 절대값 3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0.796~1.457로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모형의 최대우도추정이 가능한 것(Kline, 2010)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는 <표 4>과 같다. 첫째, 사회불안은 사회정서역량과  $r=-.233$ ,  $p<.01$ 로, 학교적응과  $r=-.230$ ,  $p<.01$ 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정서역량은 학교적응과  $r=.590$ ,  $p<.01$ 로 정적상관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변인 간의 이변량상관분석을 통한 단순 상관은  $-.319\sim.891$ 로 측정되었다. 사회불안과 학교적응 변인들 중 일부 변인에서 잠재변수의 변인과 관측변수로 설정된 변인 간 상관이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해당변인과 하위변인 간 높은 상관이 나타난 것(사회불안 점수와 그 관측변수인 불안 1~3 간,  $r=.828\sim.891$ ,  $p<.01$ , 학교적응 점수와 그 관측변수 중 적응4 변인 간,  $r=.818$ ,  $p<.01$ )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는 변인 간 상관이  $-.319\sim.771$ 으로 적합하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변인 간 상관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인과관계 분석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용가능하다고(김영화, 안태용, 2023) 판단하였다.

〈표 3〉 기술통계 결과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사회불안 하위요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00	5.00	2.111	1.022	0.939	0.145	-0.070	0.289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1.00	5.00	2.526	1.000	0.428	0.145	-0.661	0.289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1.00	5.00	1.845	0.835	1.258	0.145	1.225	0.289
사회불안(전체)									
사회정서 역량 하위요인	정서인식	2.00	5.00	3.748	0.726	0.007	0.145	-0.796	0.289
	자기관리	1.00	5.00	3.285	0.888	0.199	0.145	-0.574	0.289
	공감	1.50	5.00	3.772	0.757	-0.320	0.145	-0.525	0.289
	긍정관계	1.50	5.00	3.730	0.733	-0.282	0.145	-0.185	0.289
사회정서역량(전체)									
학교적응 하위요인	책임행동	1.25	5.00	4.215	0.652	-0.985	0.145	1.457	0.289
	학습활동	1.81	4.00	3.048	0.384	-0.089	0.145	0.004	0.289
	학교규칙	2.00	4.00	3.422	0.458	-0.620	0.145	-0.365	0.289
	교우관계	1.40	4.00	2.878	0.438	-0.323	0.145	0.924	0.289
학교적응(전체)									
	교사관계	1.00	4.00	3.305	0.631	-0.956	0.145	0.734	0.289
	학교적응(전체)	1.85	4.00	3.163	0.362	-0.405	0.145	0.094	0.289

〈표 4〉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불안1	1														
2.불안2	.543**	1													
3.불안3	.571**	.698**	1												
4.사회불안	.891**	.830**	.828**	1											
5.역량1	-.284**	-.242**	-.234**	-.303**	1										
6.역량2	-.047	-.068	-.077	-.070	.389**	1									
7.역량3	-.001	-.108	-.073	-.057	.440**	.422**	1								
8.역량4	-.175**	-.249**	-.319**	-.269**	.408**	.367**	.483**	1							
9.역량5	-.156**	-.071	-.182**	-.161**	.530**	.349**	.556**	.545**	1						
10.사회정서 역량	-.181**	-.201**	-.235**	-.233**	.760**	.701**	.766**	.733**	.771**	1					
11.적응1	-.125*	-.091	-.079	-.121*	.314**	.290**	.281**	.437**	.394**	.454**	1				
12.적응2	-.126*	-.056	-.124*	-.123*	.343**	.289**	.413**	.381**	.552**	.518**	.427**	1			
13.적응3	-.160**	-.202**	-.235**	-.222**	.299**	.202**	.315**	.530**	.331**	.441**	.442**	.380**	1		
14.적응4	-.187**	-.156**	-.197**	-.210**	.172**	.243**	.319**	.420**	.364**	.395**	.426**	.435**	.436**	1	
15.학교적응	-.203**	-.171**	-.217**	-.230**	.357**	.335**	.439**	.579**	.538**	.590**	.720**	.734**	.729**	.818**	1

\*  $p < .05$ , \*\*  $p < .01$ , \*\*\*  $p < .001$

불안1: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불안2: 새로운 상황의 회피와 불안, 불안3: 일반적 상황의 회피와 불안

역량1: 정서인식, 역량2: 자기관리, 역량3: 공감, 역량4: 긍정관계, 역량5: 책임행동

적응1: 학습활동, 적응2: 학교규칙, 적응3: 교우관계, 적응4: 교사관계

## 2. 연구 모형 검증

연구 모형은 초등 4~6학년 전학 경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사회불안이 사회정서역량을 매개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에 대한 모형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전학생들의 사회불안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가. 측정 모형 검증

AMOS 29.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각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chi^2=155.838(df=51, p=.000)$ 로,  $p<.05$ 에 해당하였다. CFI=.913으로 .90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IFI=.914로 .90 이상으로 도출되었으며, TLI=.888로 .90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85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우종필, 2025). RMSEA=.084로 .08 기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자유도가 낮은 모형의 경우,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고(Huberty & Petoskey, 2000), 90% 신뢰구간에서 하한값이 .08 이하에 포함되어 있어 경계선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간명적합지수인 PNFI(.678)와 PCFI(.706)는 .50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인 간의 상관은 <표 4>에서 제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변인 간 상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와 같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부하량은 .515~.864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김영화, 안태용,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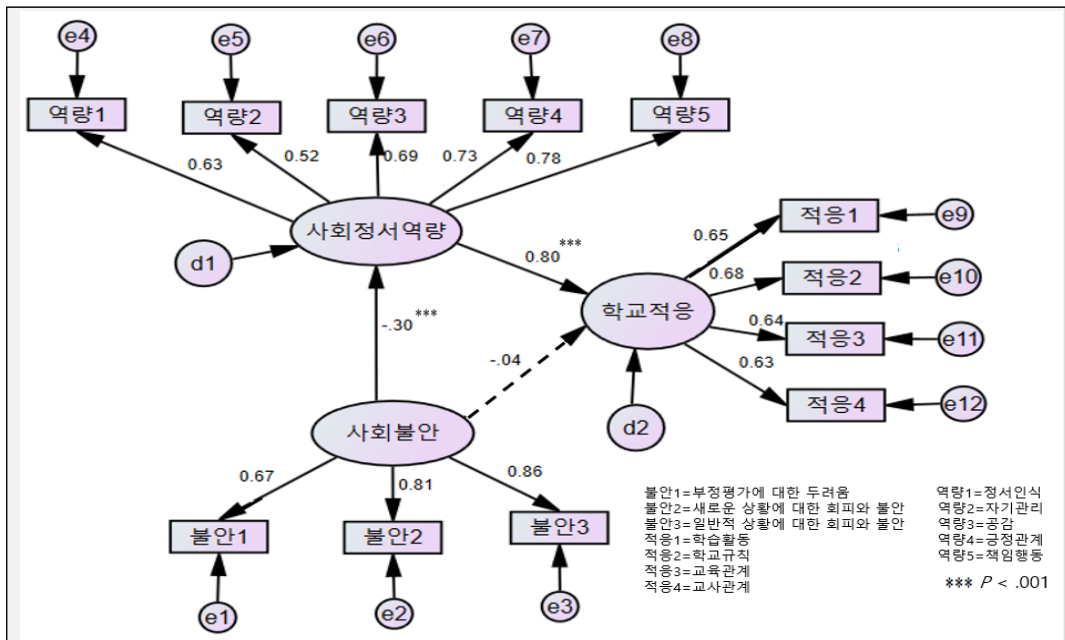
<표 5>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N=283)

잠재변인	측정변수	B	S.E	$\beta$	C.R.
사회불안	→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943	.088	.667	10.780***
	→ 새로운 상황의 회피와 불안	1.119	.091	.807	9.373***
	→ 일반적 상황의 회피와 불안	1	-	.864	-
사회정서역량	→ 경서인식	1	-	.629	-
	→ 자기관리	1.002	.135	.515	7.401***
	→ 공감	1.136	.123	.686	9.219***
	→ 긍정관계	1.172	.125	.730	9.373***
	→ 책임행동	1.108	.109	.777	10.162***
학교적응	→ 학습활동	1	-	.616	-
	→ 학교규칙	1.135	.142	.592	7.971***
	→ 교우관계	1.164	.138	.637	8.412***
	→ 교사관계	1.897	.208	.722	9.127***

\*\*\*  $p<.001$

나.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경로분석 결과와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표 6>와 같다. A초등학교 전학 경험 학생들의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불안으로부터 학교적응의 경로( $\beta = -.035$ , C.R. = -3.946,  $p > .05$ )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회불안으로부터 사회정서역량에 이르는 경로( $\beta = .296$ , C.R. = 7.486,  $p < .001$ )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사회정서역량에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 $\beta = .801$ , C.R. = 7.486,  $p < .001$ )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6학년 고학년 학생들의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또한, 사회불안이 사회정서역량 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전학 경험이 지닌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1] 전학생의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표 6〉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N=283)

경로		B	S.E	$\beta$	C.R.
사회불안	→ 사회정서역량	-.187	.047	-.296	-3.946***
	→ 학교적응	-.012	.022	-.035	-.553
사회정서역량	→ 학교적응	.438	.058	.801	7.486***

\*\*\*  $p < .001$

#### 다. 사회불안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에 따라 [그림 1]에서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을 대상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사회불안, 학교적응, 사회정서역량 간 효과, 사회불안이 사회정서역량을 거쳐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통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불안은 사회정서역량에 부적 영향이 유의미한 것( $\beta = -.296$ ,  $C.R. = -3.946$ ,  $p < .001$ )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대한 부적 영향( $\beta = -.035$ ,  $C.R. = .553$ ,  $p > .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직접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정서역량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있었다( $\beta = .801$ ,  $C.R. = 7.486$ ,  $p < .001$ ). 따라서 사회정서역량은 학교적응에 직접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정서역량을 매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불안이 사회정서역량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beta = -.296$ ,  $C.R. = -3.946$ ,  $p < .001$ ), 사회정서역량은 정적영향을 학교적응에 미치고 있어( $\beta = .801$ ,  $C.R. = 7.486$ ,  $p < .001$ ), 사회불안은 사회정서역량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불안에서 학교적응에 직접효과는 없으나, 사회불안이 사회정서역량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237$ ,  $p < .001$ )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불안이 사회정서역량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총효과는  $\beta = -.272^{***}$ 이다. CI값은 95% 신뢰수준에서  $[-.45, -.26]$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 간 유의성 검증 결과 (N=283)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beta$	B	$\beta$	
사회불안 → 사회정서역량	-.187	-.296***			-.296***
사회정서역량 → 학교적응	.438	.801***			.801***
사회불안 → 사회정서역량 → 학교적응	-.012	-.035	-.082	-0.237***	-.272***

\*\*\*  $p < .001$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 고학년 학생의 사회불안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들의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의 각 측정변인들 간에 일부 변인 간 관계를 제외하고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사회불안 변인과 사회정서역량 변인 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 $r = -.233^{**}$ )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불안과 학교적응 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 $r = -.230^{**}$ )으로 확인되었다.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사회불안의 총 변인 및 하위변인들과 사회정서역량의 총 변인 및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 24개 중 전체가 부적 상관의 수치를 보였으며, 9개의 상관을 제외하고 부적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총 변인 및 하위변들과 학교적응의 총 변인 및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의 경우, 총 20개의 상관 중 3개의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 상관들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사회불안이나 사회정서역량을 포함한 심리정서적 요인들이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김사다 외, 2017; 이용택 외, 2014; 차원희, 2000; 홍애순, 조규판, 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과 학교적응이 부적 상관의 확인은 선행 연구들(김수정 외, 2018; 양재원 외, 2008; Degnan, & Fox, 2007)에서도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어, 학교적응에 사회불안이 부정적 관련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회불안과 학교적응 간 부적 상관은 있으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정서역량과 학교적응의 부적 상관 역시 기존의 선행 연구들(김은정 외, 2015; 김현진 외, 2020; 김현진 외, 2023; Zins, & Elias, 2006)이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였으며, 개교 초등학교 전학생들도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들의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 결론에 도달하였다. 사회불안에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회불안에서 사회정서역량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하였으며, 사회정서역량에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사회정서역량을 저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김수정 외, 2018; 양재원 외, 2008)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와의 상이한 점이 발생한 것은 본 연구의 매개변인의 통제효과 가능성과 표본 특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을 포함한 구조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경로가 아닌 간접경로로 재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 사회정서역량을 통해 발현되는 간접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본의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전학생 집단은 개교에 따른 전체 집단의 전학이 발생하였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학교적응은 학업적응,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교규범 준수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학교적응에서 사회불안은 특히 또래관계 영역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서보나, 김유미, 2023), 본 연구의 개교 전학생들은 기존 또래관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 해체된 또래관계에서 모두 새로운 관계맺기를 시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본 연구의 연구 모형과 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선행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되는 바, 개교한 학교의 학생들의 심리정서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김누리, 최선, 2024; 김소영 외, 2018; 김지언, 신태섭, 2023; 김현진 외, 2023)과는 일치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사회정서역량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직접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정서역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의 사회불안, 사회정서역량, 학교적응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으나, 사회불안이 사회정서역량과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있었으며, 사회정서역량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직접효과는 없으나, 사회불안이 사회정

서역량을 거쳐 학교적응에 간접효과를 지니고 있어,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의 직접효과는  $\beta = -.035$ 였으며, 사회정서역량을 통한 간접효과는  $\beta = -.237^{***}$ 로 도출되었으며, 총효과는  $\beta = -.272^{***}$ 로 부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사회불안과 학교적응의 어려움 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불안과 함께 사회정서역량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전학생의 사회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들(김사다 외, 2017; 백경숙, 2003; 차원희, 2000; 최정운, 2016; 이웅택 외, 2014)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전학 과정에서 높은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동기의 약 10~15%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을 낮추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유혜경, 2009). 이선영과 손현동(2022)은 그림책을 활용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낮추었으며, 양나은과 김향숙(2022)은 자기자비 글쓰기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불안 감소 프로그램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대상으로 연구된 내용을 참고로 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집단상담이나, 담임교사의 수업 연계 불안감소 프로그램들이 전학생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의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정서역량이 완전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전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의 향상을 통해 학교적응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전학생의 사회불안은 낮추면서 동시에 사회정서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정서역량은 정서인식 및 조절하기, 자기 관리하기, 공감하기, 긍정적 관계 맺기, 책임있는 행동하기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각 하위요인들의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정서역량은 전반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권슬아 외(2020)는 동화 활용 공감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정서역량과 인성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연수와 임진영(2024)은 그림책 활용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교우관계와 사회정서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은영과 천성문(2024)은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요인들의 향상을 유도하는 사회정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 고학년 부적응학생의 우울 수준은 낮추고 사회정서역량은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윤경(2025)은 놀이 활용 현실치료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을 유의미하게 신장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프로그램들은 사회정서역량의 개념과 하위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은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적용 후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모두 함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어, 초등학교 전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사회불안과 사회정서역량의 심리정서적 요인 간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초등학생에게 전학이라는 상황에서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해 보면, 이선영과 손현동(2022)의 연구와 이연수와 임진영(2024)의 연구를 반영한 그림책을 활용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사회불안 감소 및 사회정서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개발할 수도 있고, 관련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기관의 주도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담임교사에 의해 학급운영 및 수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연구로 제안할 수 있다. 선행 연구(이선영, 손현동, 2022; 이연수, 임진영, 2024)에서 사회불안 감소와 사회정서역량의 향상 부분을 이미 검증하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이나 전문상담교사의 Wee클래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방안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사회불안 감소와 사회정서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권승아 외, 2020; 이선영, 손현동, 2022; 이연수, 임진영, 2024; 이은영, 천성문, 2024; 최윤경, 2025)을 활용한 교사 연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 정책적으로 개교, 택지개발, 학교통폐합 등으로 인해 전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를 조사하고 목록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학생의 사회불안 감소 및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를 우선적으로 필수 배치하여 전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특성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강석영 외, 2014), 초등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상담활동은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을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기(이가연, 2010) 때문에, 전학생 대상의 전문적 상담기법과 전략이 개발될 필요도 있다. 담임교사들은 전학생들에게 교육, 체험, 활동 등의 형태로 학교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웅택 외, 2014). 또한, 전학으로 인한 학생생활의 변화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이성용, 강영택, 2010),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전학생 가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학생의 상담은 전학생 개인상담은 물론,

학급 전체의 집단상담과 전학생 가족을 포함하는 가족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청주시의 A초등학교의 전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다른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과 관련한 심리정서요인을 측정하고 분석한다면 보다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등학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급의 전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측정변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학생이 학교적응을 하는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변인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논의 부분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전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 사회불안 감소 및 사회정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나, 전학생 대상의 전문적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대상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좋을 것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가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학급 단위 프로그램이나 전문상담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논문 투고일: 2026. 2. 2.   ※ 논문 수정일: 2026. 3. 30.   ※ 게재 확정일: 2026. 3. 30.

### 〈참고문헌〉

- 강석영, 이창호, 이동훈 (2014).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학교정신건강 문제 및 개입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2(1), 93-123.
- 구해인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권슬아, 최준섭, 이재용 (2020). 동화를 활용한 공감 6단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사회정서역량 및 인성수준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9(4), 409-431.
- 김한솔, 김규찬 (2023).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63), 1-25.
- 김누리, 최선 (2024). 사회정서역량과 친사회성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22(1), 345-365.
- 김보미 (2019). **초등학교 군인자녀의 전학 횡수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사다, 조봉환, 박미진 (2017). 세종특별자치시 전학 초등학교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6(4), 481-493.
- 김성식, 고은지, 현유정 (2024). 초등학교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대한 전학과 교사선호도의 영향: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초등교육**, 35(1), 113-131.
- 김소영, 김현지, 이상후 (2018).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이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8), 477-494.
- 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 부모갈등 지각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사회불안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4), 21-41.
- 김연수, 김수정 (2020).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2), 261-269.
- 김영화, 안태용 (2023). 초등학교 교사의 자기불일치와 소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2(2), 255-278.
- 김은정, 김춘화, 이상수 (2015).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들의 사회정서역량과 공동체의식 개선에 주는 의미 탐색. **교육방법연구**, 27(4), 511-534.
- 김주희 (2015). **초등학교 전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지연, 신태섭 (2023). 코로나19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정서역량이 또래관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4(1), 1621-1635
- 김현진, 김미숙, 이선영, 김정아, 김민성, 김준엽, 조운정 (2020).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IV): 본조사 결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20-07.
- 김현진, 조운정, 김준엽, 김민성 (202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24(3), 557-585.
- 나재은 (2015). 직업군인 아버지의 계급과 전학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학교적응: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지혜 (2020).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전학경험이 6학년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방승일 (2009). **중학교 전학생의 전학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배민영 (2024). **사회불안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기술, 자기노출, 친구관계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백경숙 (2003). **초등학생들의 전학 적응 스트레스 및 대처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보나, 김유미 (2023).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2(2), 197-212.
- 송애리 (2019). 한국 전학생의 눈에 비친 미국 초등학교 규칙에 관한 연구: 잠재적 교육과정에서의 함의. **윤리교육연구**, (53), 121-153.
- 신현숙 (2011). 학습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75-197.
- 신혜림, 권정현 (2025). 신설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학교 적응 차이: 잠재프로파일 분석. **초등상담연구**, 24(4), 707-729.
- 안상현 (2016). **초등학교 전학생의 학급생활 적응과정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양나은, 김향숙 (2022). 자기자비 글쓰기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비난,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비교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003-1038.
-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 (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861-878.
- 이가연 (2010). **학교상담활동이 초등학교 전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선영, 손현동 (2022). 그림책을 활용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사회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24(4), 45-68.
- 이성용, 강영택 (2010).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의 전학이 지체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7(1), 223-238.
- 이연수, 임진영 (2024). 그림책을 활용한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와 사회정서 역량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23(3), 447-464.
- 이은영, 천성문 (2024). 사회정서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초등 고학년 부적응학생의 우울과 사회정서 역량에 미치는 효과. **교육치료연구**, 16(2), 253-272.
- 이웅택, 주현주, 유난영 (2014). 청소년의 전학경험과 학교생활부족응의 관계에서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39(-), 91-113.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우연경, 이인태 (2024).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초등교육연구**, 37(1), 1-24.
- 유혜경 (2009)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자아개념 및 사회불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금화 (2005). **전학횟수 및 양육태도에 따른 군인자녀와 일반자녀의 불안과 우울의 차이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수현, 김유미 (202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유능성: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2(2), 213-230.

- 조봉진 (2010). **군인자녀의 전학경험과 부모직업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 : 초등학생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영민, 김석주 (2019). 초등학교 시기의 이사 및 전학 경험이 주관적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1), 77-98.
- 차원희 (2000). **초등학생의 전학에 관한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2025).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정서역량,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24(2), 369-392.
- 최정운 (2016). **초등학교에서의 전학경험이 정서문제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허가람, 박영림 (2023).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 내 초등 교사들의 개교 준비 및 개교 후 생활 경험. **교육비평**, (53), 148-190.
- 홍애순, 조규판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학교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 45-68.
- Cheng, S. & Chan, A. C. M. (2003). The development of a brief measure of school attitud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6), 1060-1070.
- Dag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Multiple level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al and Psychology*, 64, 215-230.
- Huberty, C. J., & Petoskey, M. D. (2000).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nd covariance. In H. E. A. Tinsley & S. D. Brown (Eds.), *Handbook of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and mathematical modeling* (pp. 183-208). Academic Press.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The Guilford Press.
- Mori, S. (2000).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 137-144.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Taylor, r. D., Oberle, E., Durlak, J. A., & Weissberg, r. P. (2017). Promo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chool-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terventions: A meta-analysis of follow-up effects. *Child Development*, 88(4), 1156-1171.
- Zins, J. E., & Elias, M. J.(2006).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G. G. Bear & K. M. Minke (Eds.), *Children's needs III: Developmen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p. 1-13).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Abstract〉

---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Upper-grade Transfer Students at a Newly Opened Elementary School

---

Kwon Junghyeon<sup>1</sup>

This study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transfer students in grades 4-6 at a newly opened elementary school, and was conducted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garding the school adjustment of transfer students. Through this, we conducted a study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garding the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transfer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83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transferred to an elementary school that opened in 2025 with the consent of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guardian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social anxiety, social emotional competence, and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transfer students. Correlations also existed between sub-variables, excluding some variables. Second, the path from social anxiety to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the path from social-emotional competence to school adjustment were significant, while the path from social anxiety to school adjustment was not significant, confirming that social anxiety fully mediates school adjustment through social-emotional competenc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school adjustment among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derived, measures to enhance school adjustment were proposed, and follow-up research was suggested.

**Keywords** : elementary school transfer students, social anxiety, school adaptation, social emotion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

---

1. Associate 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kwoonga@kunsan.ac.kr (Lead Author)